

성과요약서

강남구, '공감세정'으로 재산세 징수율 1위 달성

추진
개요

☑ 배경 및 목적

- ▶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부과액(약 1조 3천억 원)으로 인한 징수율 정체의 한계 극복
- ▶ 단순 징수 위주 행정에서 탈피,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'공감 세정'으로 패러다임 전환

☑ 추진 전략

- ▶ 권익 보호: 분할납부, 납부유예, 주택담보노후연금 감면 등 3대 권익보호 제도 적극 홍보
- ▶ 스마트 송달: 전자고지 오류 및 반송분에 대한 '카카오톡 알림톡' 발송으로 틈새 공략
- ▶ 위기 대응: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납기 연장(10.15.) 및 전방위 홍보

추진
성과

☑ 서울시 자치구 중 10년 만에 건수 징수율 "1위" 달성

- ▶ 7월 정기분 금액 징수율 96.8%로 서울시 1위 달성 (전년 대비 1% ↑)
- ▶ 7,9월 총 징수액: 총 1조 2,562억 원
- ▶ 성과 의의: 고질적인 징수율 4~5위권 정체를 극복하고 '강남구 징수율 1위'라는 기적적인 성과 창출

☑ '카카오톡 모바일 고지'를 통한 징수율 제고 (탄소중립 실천)

- ▶ 추진내용: 종이고지서 반송 및 미납자 대상 모바일 안내문 발송 (기존 재발송 방식 개선)
- ▶ 징수효과: 3차에 걸친 발송으로 7,9월 합계 9,248건, 184억 원 징수

☑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활성화 (전년 대비 실적 대폭 상승)

- ▶ 분할납부: 7,9월 합계 3,864건, 969억 원 (전년 대비 14% 증가)
- ▶ 납부유예: 7,9월 합계 45건, 124억 원 (전년 대비 137% 증가)
- ▶ 주택연금 감면: 7,9월 합계 464건, 47억 원 (전년 대비 43% 증가)

기대
효과

- ☑ '세금을 걷는다'는 관점에서 '납세 편의를 돕는다'는 관점에서의 전환이 징수율 1위의 원동력
- ☑ 국가 재난 상황(전산 장애)에서도 유연한 납기 연장과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 혼란 최소화